

인간의 무관심이 고마운 가마우지들의 ‘겨울왕국’

국내 최초 1박 2일 오륙도 가마우지 탐방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오륙도 가마우지들은 ‘너무 가까워’ 관심을 못 받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의 랜드마크 오륙도에 가마우지들이 집단 서식하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오륙도 6개 섬 중 가장 큰 굴섬은 가마우지 월동지로 매년 11~12월 북녘에서 날아와 봄날에 다시 떠난다.

지난 18일 본지 취재팀은 1박2일 오륙도 가마우지 탐방에 나섰다. 흔히 많은 광경에 YTN과 연합뉴스TV 등 방송사가 합류했다. 가마우지는 ‘검은(가마) 오리(우지)’라는 뜻이다.

오륙도 가마우지

오륙도 가마우지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데는 섬이라는 물리적 거리 탓도 있지만 녀석들의 ‘출퇴근’ 시간이 주요하다. 가마우지 무리는 해를 무렵 먹이잡이를 위해 굴섬을 떠나고, 해가 뜬 뒤 돌아와 섬으로 돌아온다. 서식지인 굴섬을 가까이 보려면 오륙도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웃 등대섬에 가야 하는데, 유람선은 규정상 일출~일몰 내에서만 운항한다. 마치 견우직녀처럼 녀석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녀석들을 제대로 보려면 오륙도 등대가 있는 등대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

오륙도 맨 마지막 여섯째 등대섬은 물에서 1km 남짓, 유람선으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굴섬에 다가가자 가마우지 배설물로 사면이 눈 내린 것처럼 하얗다. 육지에서는 섬 정상만 하얗게 보였는데, 근접하니 수면 부근까지 물들어 있었다. 굴섬 옆 송곳섬(오륙도 넷째 섬) 일부도 가마우지 배설물로 하얗게 변해 있음이 처음 확인됐다.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오랜 세월 쌓인 새의 배설물을 구아노(guano)라고 부르는데 집산이 풍부해 남미에서는 천연비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유람선 배고동 소리에 놀란 녀석들이 까맣게 하늘을 뒤덮었다. 얼추 수백마리는 넘어 보인다.

탐사팀은 오륙도등대에 올라 굴섬과 마주 보는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낙동강 습지에서 먹이잡이를 마친 가마우지들의 ‘집단 퇴근’이 이어졌다. V자 대형을 그리며 날아오다 굴섬 부근에서 흩어져 섬을 서너 바퀴 선회한 뒤에 ‘제 자리’에 안착했다.

평탄한 정상 부근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명당’을 놓친 녀석들은 깎아지른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위계질서에 의한 자리 배치인 듯 싶다.

오륙도 가마우지는 민물가마우지로 뺨 부위가 노랗다. 몸 색깔은 검고 머리가 휘어 그다지 예쁜 새는 아니다. 하지만 1분 이상의 잠수능력과 부리 끝에 낚시 바늘 같은 돌기가 있어 ‘물고기 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사냥 실력이 탁월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부들이 가마우지를



감만동(靑은 부분) 옆으로 오륙도가 보이고 그 앞 가마우지들이 바윗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 1조선부산포초량화관지도에 잘 나온다.

■ 오륙도 가마우지 생태

- ▶수명 : 15~20년
- ▶생활양식 : 무리 생활
- ▶크기 : 82~108cm
- ▶몸의 빛깔 : 검은색, 흰색
- ▶특기 : 잠수로 헤엄쳐 물고기 사냥
- ▶알 낳는 시기 : 5월 하순~7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했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 그는 1990년부터 등대지기를 시작해 30년 가까이 등대에서 생활했다. 오륙도등대에서만 6년을 근무했다.

물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섬은 섬이다. 태풍이 들이칠 때면 파도가 등대섬 전체를 집어 삼키는 건 예사라고 한다. 오륙도등대는 섬 높이까지 포함하면 해발 55m가 넘는다. 무료한 등대지기 일상에서 가마우지는 좋은 친구였다. 그는 “가마우지 무리를 보고 있으면 군대 같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륙도등대가 무인화 되면서 김씨는 올해부터 육지 근무로 전환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대 점검을 나온다. 가마우지로 시작된 대화는 등대이야기로, 다시 남지들의 군대이야기로 옮겨가면 서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오륙도 굴섬은 가마우지 집단 월동지

배설물로 ‘설산’ 도심 속 이색풍경

겨울 진객 불구 생태조사·정보 등 전무

해 뜨면 낙동강 ‘출근’ 해거름 ‘귀환’

이웃 등대섬 가마우지 최적 관찰지

올해부터 등대지기 없어 무인등대

다시 시작된 가마우지의 하루

동이 틀 무렵 가마우지의 하루가 다시 시작했다. 위밍업 삼아 굴섬 주위를 몇 번 돌고는 편대를 이뤄 서쪽으로 기수를 잡았다. 먹이가 풍부한 낙동강하구가 있는 방향이다.

민물가마우지는 바다, 강, 호수에 살고 남해 거제도과 서해 앞바다 등에서 주로 월동한다. 일부 텃새가 된 녀석들도 있지만 오륙도 가마우지들은 봄이 되면 한 녀석도 남지 않고 북녘으로 날아간다.

굴섬이 언제부터 가마우지들의 겨울왕국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18세기 초에 그려진 조선부산포초량화관지도에 오륙도 부근 가마우지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인간이란 천적이 근접하기 어려운 보금자리를 찾다 어느 눈 밝은 리더에 의해 첫 발을 들여놓았을 것이다. 가마우지의 수명은 15~20년인데, 매년 굴섬에 다시 오는 것을 보면 녀석들은 ‘굴섬의 겨울 추억’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륙도 가마우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생태나 서식환경을 조사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어쩌보면 이런 인간의 무관심이 녀석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저런 저명한 남구의 겨울손님들이 반갑다.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오륙도등대의 하룻밤

주위가 어둑해지자 오륙도 등대에 불이 들어왔다. 등명기가 회전하면서 불빛이 5~6초 간격으로 굴섬과 가마우지들을 비추며 지나갔다. 등대 불빛에도 녀석들은 망부석처럼 겨울 사탕을 이겨내고 있었다.

정부의 유인등대 무인화정책으로 오륙도 등대는 올해부터 등대지기가 사라졌다. 이날은 탐방팀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특별히 ‘빛장’을 펼쳤다. 등대 1층에는 발전소와 주방이 딸린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등대지기를 위한 거실과 개인 숙소가 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준비해 간 저녁을 먹는데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굴섬이 마치 알프스의 어느 설산을 연상시킨다.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만 빼면 휴양지의 펜션과 다를 게 없다.

취재팀과 동행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와 직원 김흥수씨는 “오륙도등대가 세워지고



1 오륙도등대에서 바라본 굴섬. 가마우지 배설물로 겨울이면 온통 설산으로 변한다. 왼쪽으로 오륙도SK뷰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 밤이 깊은 오륙도등대. 3 굴섬 주위를 순회하는 가마우지떼.



오륙도등대에 CCTV 달아 가마우지 관찰 어떻게

일반인이 가마우지를 보려 등대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무인화 된 등대섬에서 숙박을 하려면 부산 지방해양청의 허가를 받고 해양청 직원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대섬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이웃 굴섬의 가마우지 생태를 모니터링하면 어떨까. KBS와 (사)국토사랑방송협의회에 서 독도에 CCTV를 달아 위성장비

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앱으로 24시간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송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륙도의 소유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오륙도는 지난 2007년 명승 제24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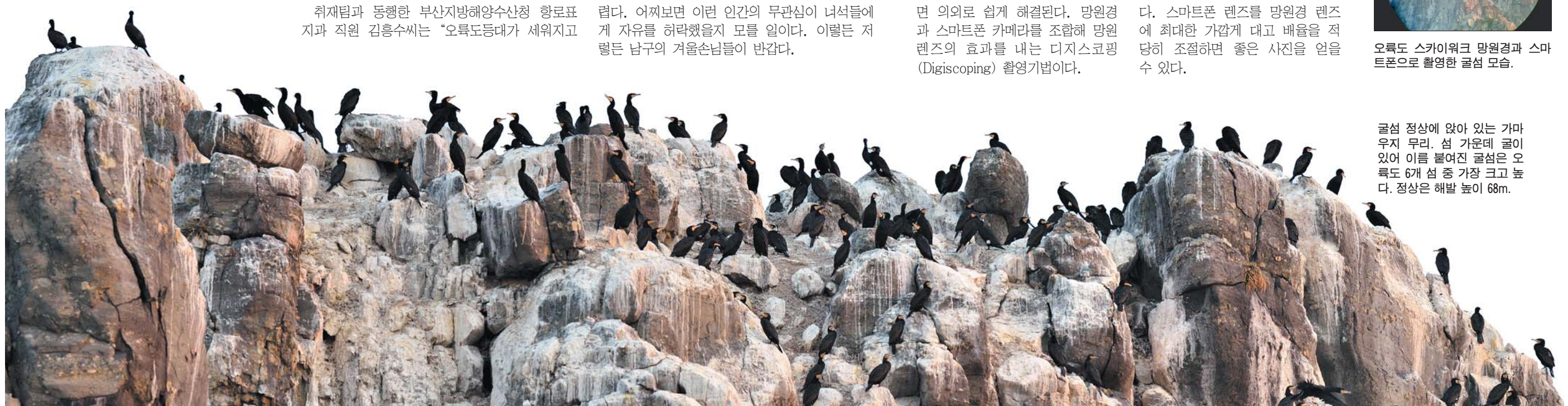
망원경·스마트폰 조합해 가마우지 ‘찰칵’

육지에서는 굴섬과의 거리가 가마우지 사진을 촬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오륙도스카이워크에 설치된 고화질 망원경을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망원경과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합해 망원경 렌즈의 효과를 내는 디지스코핑(Digiscoping) 촬영기법이다.

망원경으로 우선 굴섬에 앉아있는 가마우지에 초점을 맞춘 뒤,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시 옮겨 담는 방법이다. 스마트폰 렌즈를 망원경 렌즈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배율을 적당히 조절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망원경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굴섬 모습.



굴섬 정상에 앉아 있는 가마우지 무리. 섬 가운데 굴이 있어 이를 붙여진 굴섬은 오륙도 6개 섬 중 가장 크고 높다. 정상은 해발 높이 68m.

부산대연음식나라조리학원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과정

“주말반” 운영 안내

바쁜 직장인,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합니다.

수업요일	매주 금요일(18시~20시) 토요일, 일요일(10시~12시30분)
수강료	400,000원

교무과 051.628.6464로 문의주시면 안내가능 합니다.

T. 051-628-6464

유료광고

〈대학 특례 입학반〉

책임반 및 학기제도 상시모집!

책임반	1년 기간, 2과목 선택 자격증 취득반 반목 실습, 실전 모의 고사 실시
학기제도	6개월 기간, 1과목 선택 실전 모의 테스트 자격증 취득까지 반복 학습 실시

책임반 등록사 선착순에 한하여 최고급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마감시까지)

최고의 합격률, 최고의 시설, 최고의 강사진으로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겨울철 건강간식 즉석에서 만들어드립니다

전통 수제 강정 맛보러 오세요

since 1971

취급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추, 깨, 참깨, 고추장, 간장, 된장, 소금, 쌀, 잡곡, 진도율금, 아마씨, 귀리, 마늘, 생강, 각종 채(보리, 옥수수, 결명자, 동글레 등)

주문, 배달 환영 / 4계절 장 담아드립니다

과일나라, 못골 건강원 옆
☎621-8115

못골시장 형제상회

유료광고

영제상회

어머니 학생 모집

어머니 중학생 (2년 졸업)

국가지원 무상교육

영어 ABC를 몰라도~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수업
위치 : 당감동(무료 통학버스)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4

유료광고